

아동의 심리적 복지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The Child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 Development and Validity

최 진 원*

Choi, Jin Won

이 소희**

Lee, So 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ed at establishing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regarding the instrument of assessing chil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child psychological well-being rating scale contained 3 dimensions (sense of competency, sense of relation, sense of improvement) 8 variables (sense of control, sense of achievement, sense of confidence, sense of acceptance, sense of intimacy, sense of balance, sense of morale, sense of hope) and 4 rating scale of 80 items. After the scale development, the estimates of reliability for the scale were high. Cornbach α was .962 and generalizability was .875. And concurrent validity, criteria related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appeared to be evident sufficiently to the validity of child psychological well-being instrument. The significance of the present study was intended to apply scale validity procedure by using generalizability.

Key Word : 아동의 심리적 복지(child's psychological well-being), 척도개발(scale development), 타당화 연구(validity)

* 접수 2002년 4월 30일, 채택 2002년 6월 16일

* 제주관광대학 유아교육과 전임강사, E-mail : i_jowa@freechal.com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만으로는 사회구성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소득이나 경제성장은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는 생활에 대한 복지감의 향상과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Campbell, 1976). 과거에 비해 오늘날은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환경의 변화와 함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이 증가하고 있고 비행과 일탈도 증가추세에 있다. 이제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삶의 질을 논할 수 없으며, 환경을 객관적 수준에서 동일하게 제시한다 할지라도 개인의 행복감, 만족감, 복지감, 안녕감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 환경에 대한 측정보다는 개인의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에 주목하게 되었다.

심리적복지(psychological well-being)는 이런 배경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Bradburn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을 행복(happiness)으로 번역한 후, 행복을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의 균형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그러나 그 후 연구들에서 행복에 대한 개념적 정의 및 측정방법과 관련된 논쟁이 제기되었고(Ryff, 1989), 행복이라는 추상적 개념 대신 안녕감(sense of well-being)이나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복지(welfare), 삶의 기준(standard of life), 만족(satisfaction)을 사용해 측정하였다(Schuessler, 1995).

Bradburn(1969)은 심리적복지를 자신의 생활에 대하여 ‘스스로 공언하는 행복(avowed happiness)’이라 정의하고 생활전반 또는 인생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시도한 바 있다. 또한, Medley(1976)는 개인의 기대수준이 합리적으로 충족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로 생활전반에 대한 심리적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고, Kazdin(1993)은 역기능의 부재와 개인적·대인 관계적 강점을 갖는 긍정적 기능을 안녕감으로 정의하였으며, Veenhoven(1991)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호의적으로 판단하는 정도를 행복이라 정의하고,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의 유쾌한 정도와 자신의 욕망이 성취되었다고 지각하는 정도에 주목하였다.

한편, 장재정(1987)은 심리적 복지를 객관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필수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지각이라 하였고, 김민정(1996)은 심리적복지를 자신의 안녕에 대해 느끼는 모든 주관적 느낌으로 신체적 복지와 물리적 복지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라 하였다. 또한, 장영은(1998)은 심리적 복지를 개인이 삶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과 안녕감을 사회인지차원에서 파악한 개념이라 하였으며, 서정아(1998)는 심리적 복지를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스스로가 지각하는 주관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나 만족감이라 하였다.

즉, 심리적복지는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생활만족도, 긍정적 정서, 사기와 같은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상태를 개념화한 것으로 (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개인의 지각된 주관적 행복감 또는 총체적인 감정을 강조하는 용어라는 점에 대체로 합의하고 있다(McDowell & Newell, 1990). 선행연구들에 나타난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생활

만족도, 행복감, 사기 등과 같은 용어들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환경의 제 차원과 환경내에 존재하는 개인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갖게되는 총체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의 긍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심리적복지의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의 욕구충족은 행복의 상태이고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불행하다는 시각(Wilson, 1960)으로, 어떤 욕구나 목표에 대한 결핍상태가 크면 클수록 그 목표가 충족되었을 때 더 많이 행복해진다(Diener, 1984). 또한,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활동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의식하지 않고 행위에 몰두할 때 심리적만족이 있다는 시각(Cskiszentmihalyi, 1975)으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도전상황이 개인의 수준에 맞으면 즐거운 활동이 되지만, 너무 쉽거나 어려우면 지루하거나 불만을 초래하게 된다.

한편, 각종 생활만족이나 행복은 일상생활의 기쁨이 모여서 구성된다는 시각(Campbell, Converse, & Rogers, 1976)으로 긍정적인 생활경험이 모여서 긍정적 정서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적인 긍정적인 생활경험은 긍정적 정서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므로 부정적 정서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져서 미래에 만족을 느끼기 힘들게 된다(Brickman, Coates, & Janonff-Bulman, 1978). 그러므로, 생활경험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동일한 사건이나 생활이라 할지라도 개인간의 평가는 차이가 있으므로, 행복한 사람은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 개인의 반응성향에 주목하여 긍정적 기대와 연상을 통해 반응하려는 개인의 경향성에 관심을 둔다(Andrews & Withey, 1976).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개인의 주관적 준거

에 의한 평가로서 자신의 과거 경험과 현재를 비교하고, 자신의 목표준거와 수행결과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상황을 평가(Wills & Suls, 1991)하게 된다. 즉, 욕구의 충족과 활동과정의 몰입, 그리고 일상의 생활영역에서 긍정적인 사건이 모여 심리적 복지감을 형성하며, 이는 개인의 긍정적 신념이나 개인의 지각방식에 의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거나, 자신의 준거와 행위의 결과를 비교하거나, 자신과 타인을 비교함으로써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본 연구는 이를 전제로 심리적 복지의 개념 모형을 설정하고 개인은 유능하다고 느끼며, 환경으로부터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과 개인의 준거와 비교해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통해 아동의 심리적복지를 측정하고자 측정모형을 구안하였다.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은 객관적 환경에 대해 주관적 평가를 하므로, 개인적 차원과 환경적 차원 그리고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차원으로 3개의 차원을 설정하였다.

첫째,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은 자신이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과 설정한 목표를 달성한 긍정적인 경험,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은 계속적인 순환과정을 거쳐 대응전략을 최적화할 수 있게 하므로(Lynch, 1981), 능력이 해석되는 방식은 심리적복지와 관련하기 때문에(McLanhan & Adams, 1989) 개인이 환경에 적극적으로 작용하여 효과적인 변화를 생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지 유능감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둘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물리적환경, 인적환경, 사회문화적환경 등 다양한 환경이 있으나 여기서는 인적환경을 대상으로 구성원이 단지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주변환경으로

부터 수용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아동이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으로 지지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느끼는지를 중심으로 유대감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유대감은 인적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질적 측면으로, 안정된 대인관계는 적응에 도움을 주어 건강과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개인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심리적복지에 영향을 미친다(Cowen, Pederson, Babigian, Izzo, & Trost, 1973).

셋째,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은 성장발달하는 존재로 과거와 비교해 현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미래를 긍정적으로 지각할 경우 행복을 느끼므로(Ipsen, 1978; Emmons & Diener, 1985), 자신의 기대와 부합하는 편안한 상태라는 인식과 최적기능을 수행하려는 능동적인 의지를 가지고 미래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통해 향상감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아동의 심리적복지 측정모형은 유능감, 유대감, 향상감의 3차원으로, 유능감 차원은 통제감, 성취감, 자신감의 3영역으로 구성하였고, 유대감차원은 수용감, 지지감, 조력감의 3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향상감 차원은 안정감, 의욕감, 기대감의 3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각 차원은 영역을 포함하는 3차원 9영역의 차원별 척도이며,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느낄 감(感)’을 사용해 ‘~감’이라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심리적복지 척도를 개발하려는 것은 지금까지 다루어진 복지의 개념이 물리적 환경이나 외적 환경에 주목하였으나, 아동기는 물리적환경보다 심리적환경의 영향이 더 크며 사후치료적인 접근보다는 사전예방적인 접근에 의할 때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시되어왔던 아동용 스트레스 척도나 우울척도 등은 아동의 부정적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반면, 아동의 긍정적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은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정적 상태가 아니라고 해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Andrew & Withey, 1976; Bryant & Veroff, 1982; Heady, Holstrom & Wearing, 1984), 아동기 발달 적합성에 비추어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고 사전 예방적 접근에 의한 척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시말해, 현재까지 제시되어 왔던 기존의 심리적복지 척도는 감정균형척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를 양극단으로 하여 긍정적 정서가 높을 때 이를 심리적복지 상태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측정방식은 아동을 대상으로 측정할 때 생활전반, 인생전반에 대한 평가보다는 일시적인 감정을 반영할 우려가 있으며, 긍정적인 심리적 기능의 중요한 관점을 무시할 우려(Ryff & Keyes, 1995)가 있으므로 긍정적 측면을 다차원적으로 평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아동의 심리적복지 측정모형은 어떠한가?
 - (1) 아동의 심리적복지 척도의 차원은 어떠한가?
 - (2) 아동의 심리적복지 척도의 영역은 어떠한가?
- 2) 아동의 심리적복지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어떠한가?
 - (1) 아동의 심리적복지 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 (2) 아동의 심리적복지 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2. 조작적 정의

1) 유능감(有能感, sense of competency)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이 환경에 적극적으로 작용하여 효과적인 변화를 생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개인 내적인 느낌으로 통제감, 성취감, 자신감을 포함한다.

첫째, 통제감(統制感, sense of control)은 문제해결의 결과와 과제해결을 위한 시도가 외부 환경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내부에 의해 서 발생한다는 개인의 신념을 말한다.

둘째, 성취감(成就感, sense of achievement)은 능력 수준에 맞거나 능력수준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한 결과에 의해 갖게되는 개인의 느낌을 말한다.

셋째, 자신감(自信感, sense of confidence)은 과제의 성공이나 문제의 해결, 또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개인의 신념을 말한다.

2) 유대감(紐帶感, sense of relation)은 개인을 둘러싼 인적환경과의 교류적 측면으로 타인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개인 내적인 느낌으로 수용감, 지지감, 조력감을 말한다.

첫째, 수용감(受容感, sense of acceptance)은 자신이 존중받고, 보살핌과 사랑의 대상으로,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개인 내적인 느낌을 말한다.

둘째, 지지감(支持感, sense of support)은 개인간 상호작용으로, 대인교류 및 자원의 교환과 신뢰할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개인 내적인 느낌을 말한다.

셋째, 조력감(助力感, sense of assistance)은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개인 내적인 느낌을 말한다.

3) 향상감(向上感, sense of improvement)은 개인이 최적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방향으로 향상하고 있다는 개인 내적인 느낌으로, 안정감, 의욕감, 기대감을 포함한다.

첫째, 안정감(安定感, sense of balance)은 자신의 기대와 부합하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개인 내적인 느낌을 말한다.

둘째, 의욕감(意慾感, sense of morale)은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동기로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며 매진하려는 능동적인 의지에 대한 개인 내적인 느낌을 말한다.

셋째, 기대감(期待感, sense of hope)은 긍정적인 자각과 긍정적 예측을 통해 미래 행동이 자신의 준거에 일정수준 도달할 것이라는 개인 내적인 느낌을 말한다.

II. 연구방법

1. 시안 구성

아동의 심리적복지 개념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종합한 후 이론을 토대로 개념모형을 설정하였다. 개념모형을 토대로 측

정모형을 구안하기 위해 아동관련변인을 분석한 후 아동발달 전문가와 발달심리 전문가로부터 내용타당도 검증과정을 거쳐 3차원 9영역 총 126문항의 4단계 평정척도로 시안을 구성하였다.

2. 척도개발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가 되면 유능감, 지지감, 향상감에 관한 자기평가를 형성하게 된다(Ruble, Boggiano, Feldman & Loebel, 1980; Morris & Nemcek, 1982)는 점을 고려해, 부산지역 K구 소재 232명, S구 소재 141명, Y구 소재 218명, D구 소재 136명으로 총 72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실시방법

초등학교 5학년 아동 한 학급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예비조사 한 결과,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담임교사에게 연구목적 및 검사방법을 설명한 후 실시여부를 승인받았다. 자료조사는 2000년 12월 20일~22일에 이루어졌으며, 대략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질문지는 교사에 의해 학생에게 실시되었고, 응답자료는 교사를 통해 연구자가 회수하였다.

3) 자료처리

회수된 867부의 응답자료는 1문항이라도 응답하지 않았거나 이중 응답했을 경우 부호화 과정에서 제외시켜 총 727부를 선별하였다. 본 연구의 시안은 4단계 평점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화 하여 SPSS 통계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3차원 9영역 126문항의 시안에 대한 요인 추출은 영역별 문항의 독립성을 알아보고자 요인 수를 9로 정해두고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부가치 .30을 기준으로 varimax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문항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총점과 문항간의 Pearson 적률상관

계수를 산출하였고, 차원 및 영역별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고자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3. 타당화 과정

1) 연구대상

부산지역 K구 소재 296명 중 246명, S구 소재 297명 중 254명으로 초등학교 5학년 아동 593명 중 불성실 응답을 제외하고 총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실시방법

본 연구자가 초등학교 5학년 아동 한 학급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예비조사 한 결과,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담임교사에게 연구목적 및 검사방법을 설명한 후 실시여부를 승인받았다. 자료조사는 2001년 3월 20일~22일에 이루어졌으며, 대략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질문지는 교사에 의해 학생에게 실시되었고, 응답자료는 교사를 통해 연구자가 회수하였다.

3) 분석방법

(1) 신뢰도

① 내적 일관성 신뢰도-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내적일관성 신뢰도계수(Cronbach α)를 산출하였다.

② 일반화가능도- GENOVA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p \times (i : h)$ 설계의 G연구와 $p \times (I : H)$ 설계의 D연구를 하였다.

신뢰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반화가능도 이론은 그 이론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고전검사 이론의 진점수 개념과 두 가지 면에서 구별될 수 있다(Brennan, 1983).

첫째, 일반화가능도 이론은 측정결과를 일반

화하려고 하는 대상, 즉 전집의 성격이나 범위에 대해 면밀한 주의를 기울인다. 그 이유는 같은 측정도구라 하더라도 그 결과를 일반화하려는 전집에 따라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동일한 측정치에 대해서도 여러 개의 신뢰도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의 신뢰도만을 갖는 고전검사이론과 구별된다.

둘째, 측정의 오차에 대한 입장이다. 고전 점수 이론에서는 오차를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하는데 반해 일반화 가능도 이론에서는 오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해한다. 일반화 가능도 이론의 수리적 근거는 단일 오차원만을 고려하는 고전검사이론을 확대하여 중다오차원을 동시에 고려하는 측정모형에 분산분석 체계를 적용한 이론이다.

일반화 가능도에서는 측정이나 관찰을 할 때는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조건을 명시하게 되는데, 일정한 종류의 측정조건을 ‘국면(facet)’이라 하고, ‘전집(universe)’은 피험자를 관찰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한 개의 국면 또는 몇 개의 국면을 결합하여 정의한다. 일반화 가능도 이론에서 전집은 측정조건으로, 모집단은 측정대상의 의미로 쓰인다. 또한 하나의 국면은 단순히 유사한 측정조건의 집합이며 허용 가능한 변동요인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검사영역(h)에 따라 각각 다른 문항(i)으로 구성된 검사를 모든 피험자(p)에게 실시하여 검사영역에 포함된 문항에 대한 피험자의 반응을 분석하는 설계이다. 연구설계를 기술할 때는 ‘교차된(crossed with)’과 ‘내재된(nested with)’의 용어를 사용한다. 모든 조건 i에 대해 각 피험자 p를 관찰하는 설계에서 ‘p는 i와 교차되었다’고 하며 ‘i×p’로 나타내는데, 이때 ‘×’는 ‘교차되었다(crossed with)’는

의미의 기호이다. 한편, 피험자마다 검사조건 i가 다를 때는 ‘i는 p에 내재되었다’고 말하고 ‘i : p’라고 나타내며, ‘:’의 기호는 왼쪽 국면이 오른쪽 국면에 ‘내재되었다(nested with)’는 의미이다. D연구에서는 G연구에서 산출된 분산성분 추정치를 토대로 측정대상과 일반화 전집의 정의에 따라 D연구 설계의 분산성분, 전집점수 분산, 오차분산 및 일반화 가능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2) 타당도

① 준거관련 타당도- Diener와 Emmons(1985)의 행복·불행척도와 Campbell, Converse와 Rodgers(1976)의 일반적 안녕척도를 본 척도의 외적 준거로 사용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외적준거로 두 가지 척도가 제시된 이유는 심리적 복지에 대한 척도가 수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성인생활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은 척도를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본 연구자가 예비조사 한 결과, 7단계 평정의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고 5단계로 수정하여 실시하였다. 자료처리는 긍정적 방향으로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한 것으로 보았고,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는 문항은 역산하였다.

② 변별타당도- 총 12문항으로 구성된 아동의 폭력노출척도(Fox & Leavitt, 1995의 Violence Exposure Scale for Children)는 폭력목격에 대한 6문항과 폭력경험에 대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1년 동안의 폭력발생정도를 회상하여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노출이 심한 상태로 점수화하여 상하위 집단간 차이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는 심리적복지의 개념모형을 구성하고, 이에 기초해 측정모형을 구안하여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척도의 시안은 3차원(유능감, 유대감, 향상감) 9영역(통제감, 성취감, 자신감, 수용감, 지지감, 조력감, 안정감, 의욕감, 기대감) 1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요인분석은 시안에서 제시한 9개 영역에 대한 영역별 문항의 독립성 정도를 알아보고자 요인수를 9로 고정하고 주성분분석을 하였으며, 요인부하량 .30을 기준으로 varimax방법으로 회전시켰다.

시안에서 제시한 9개 영역 중 지지감(e)과 조력감(f)이 동일요인으로 나타나므로 통제감(a), 성취감(b), 자신감(c), 수용감(d), 친밀감(e+f), 안정감(g), 의욕감(h), 기대감(i)의 8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나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c1)문항은 성취감 영역과 자신감 영역에 분산되었으나 내용의 타당도를 고려해 자신감 영역에 포함시켰다.

요인분석결과를 나타내면 다음 <표 1>과 같으며, 요인별 상관계수는 다음 <표 2>와 같다. 주성분 분석을 통해 고유값 1 이상인 요인을 추출한 결과 8개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49.58%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변수의 공통성은 .19~70%였고 문항별 요인부하량은 .32~.63까지로 나타났다. 공통성값이 .40 이하인 경우 분석에서 제외시키지만,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을 선별 한 후 일반화가능도를 적용하고자 하므로 문항수를 동일하게 구성하는 과정에서 공통성값이 낮은 문항을 포함시키게 되었다.

요인간 상관을 살펴보면, 수용감과 기대감 영역($r=.54$, $p<.001$), 수용감과 친밀감 영역($r=.71$, $p<.001$), 수용감과 성취감영역($r=.55$, $p<.001$), 수용감과 자신감영역($r=.64$, $p<.001$), 수용감과 안정감영역($r=.61$, $p<.001$)이 상관을 나타내었고, 기대감과 친밀감($r=.52$, $p<.001$), 기대감과 안정감영역($r=.57$, $p<.001$)이 상관을 나타내었고, 친밀감과 자신감영역($r=.59$, $p<.001$), 친밀감과 안정감영역($r=.62$, $p<.001$)이 상관을

<표 1> 요인분석 결과

영역	문항 번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공통성
수용감	d7	.71								.67
	d2	.71								.62
	d4	.69								.64
	d6	.69								.65
	d3	.69								.61
	d10	.68								.65
	d5	.67								.59
	d13	.62								.62
	d14	.60								.59
	d12	.57	.31							.53
기대감	i10		.78							.70
	i12		.72							.60
	i8		.70							.65
	i6		.69							.63
	i11		.69							.59
	i9		.69							.63
	i5		.63							.55
	i13		.60							.51
	i14		.59							.48
	i3		.50							.46
의욕감	h10			.77						.68
	h11			.76						.68
	h8			.75						.66
	h9			.75						.64
	h12			.72						.58
	h13			.72						.54
	h7			.64						.52
	h4			.63					.38	.58
	h2			.62					.49	.69
	h1			.62					.47	.64

영역	문항 번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공통성
친밀감	e11	.33			.70					.66
	e10					.65				.59
	e12					.63				.50
	e13					.61				.43
	e9					.58				.52
	f8	.42				.55				.59
	f9	.40				.54				.55
	f5	.40				.50				.53
성취감	e14					.48				.45
	f12					.45				.41
	b9					.62				.47
	b2					.60				.45
	b10					.59				.53
	b4					.57				.49
	b6					.54				.46
	b3					.53				.42
자신감	b14					.53				.50
	b11					.50	.34			.48
	b13					.45	.36			.44
	b5					.45				.33
	c1					.38	.37			.42
	c3						.64			.55
	c4						.64			.45
	c5						.54			.54
몰입감	c6						.51			.39
	c10						.50			.51
	c13						.48			.45
	c2						.46			.43
	c7						.32	.46		.42
	c8						.46			.42
	g1	.34						.63		.64
	g2	.34						.63		.66
통제감	g12							.59		.60
	g9							.57		.45
	g8							.53		.51
	g3							.48		.48
	g7							.48		.44
	g13							.48		.26
	g5							.47		.26
	g11							.44		.36
고유값	a12								.58	.38
	a7								.56	.39
	a10								.55	.36
	a14								.54	.40
	a13								.54	.39
	a9								.51	.38
	a8								.50	.33
	a6								.50	.31
설명변량(%)	a5								.38	.23
	a3								.32	.19
누적변량(%)		21.20	5.18	3.00	2.68	2.35	1.99	1.78	1.44	
		26.50	6.48	3.75	3.35	2.94	2.49	2.23	1.81	
		26.50	32.99	36.74	40.09	43.03	45.53	47.76	49.58	

나타내었으며, 성취감과 자신감영역($r=.67$, $p<.001$), 성취감과 안정감영역($r=.53$, $p<.001$)이 상관을 나타내었고, 자신감과 안정감영역($r=.53$, $p<.001$) 간에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제시된 8영역별 상관검증결과, 차원별 척도와 관련시켜 볼 때, 통제감 영역과 의욕감 영역은 낮은 상관을 보였다.

요인분석결과 선별된 영역별 10문항의 요인부하량 및 총점과 문항과의 상관을 나타내면 다음 <표 3>, <표 4>, <표 5>, <표 6>, <표 7>, <표 8>, <표 9>, <표 10>과 같다.

통제감 영역의 10문항 중 요인부하량을 살펴보면,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한다면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다’(a12)문항이 .58로 가장 높았고, ‘선생님이 날 좋아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a3)문항이 .32로 가장 낮았다.

통제감 영역의 10문항 중 총점과 문항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만약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다’(a8)문항과 ‘어떤 일을 실패했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a10)문항,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어려운 일이라도 꼭 이루어진다’(a14)문항이 .70으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선생님이 날 좋아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a3)문항은 .26으로 가장 낮았다.

성취감 영역의 10문항 중 요인부하량을 살펴보면, ‘나는 내가 기대한 만큼 잘하고 있다.’(b9)문항이 .62로 가장 높으며, ‘내가 계획한 대로 실행한 적이 있다.’(b5)문항과 ‘나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내가 바라는 만큼 해냈다’(b13)문항이 .45로 가장 낮았다.

성취감 영역의 10문항 중 총점과 문항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대부분 내가 하려고 한 일들은 모두 잘 되었다’(b10)문항이 .59로 가장 높

〈표 2〉 요인간 상관계수

	요인1 (수용감)	요인2 (기대감)	요인3 (의욕감)	요인4 (친밀감)	요인5 (성취감)	요인6 (자신감)	요인7 (안정감)	요인8 (통제감)
요인1 (수용감)	1.00							
요인2 (기대감)	.54***	1.00						
요인3 (의욕감)	.26***	.40***	1.00					
요인4 (친밀감)	.71***	.52***	.22***	1.00				
요인5 (성취감)	.55***	.49***	.34***	.46***	1.00			
요인6 (자신감)	.64***	.51***	.300***	.59***	.67***	1.00		
요인7 (안정감)	.61***	.57***	.29***	.62***	.53***	.53***	1.00	
요인8 (통제감)	.350***	.36***	.33***	.29***	.37***	.38***	.32***	1.00

*p<.05, **p<.01, ***p<.001

〈표 3〉 통제감 영역의 문항 분석 결과

문항	통제감 영역의 문항	요인 부하량	총점과 문항과의 상관
a3	선생님이 날 좋아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32	.26***
a5	어떤 운동이건 연습을 충분히 하면 나도 잘 할 수 있다.	.38	.31***
a6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얼마나 공부했느냐에 달려있다.	.50	.34***
a7	누구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56	.43***
a8	만약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다.	.50	.70***
a9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면 항상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51	.42***
a10	어떤 일을 실패했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55	.70***
a12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한다면 내가 노력을 덜 했기 때문이다.	.58	.69***
a13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하는 것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	.54	.69***
a14	열심히 노력한다면 어려운 일이라도 꼭 이루어진다.	.54	.70***

*p<.05, **p<.01, ***p<.001

〈표 4〉 성취감 영역의 문항분석 결과

문항	성취감 영역의 문항	요인 부하량	총점과 문항과의 상관
b2	나는 지금까지 하고자 한 일을 모두 해냈다.	.60	.54***
b3	나는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 같다.	.53	.43***
b4	내가 마음먹고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냈다.	.57	.57***
b5	내가 계획한 대로 실행한 적이 있다.	.45	.44***
b6	나는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었다.	.54	.51***
b9	나는 내가 기대한 만큼 잘하고 있다.	.62	.54***
b10	대부분 내가 하려고 한 일들은 모두 잘 되었다	.59	.59***
b11	나는 힘든 일을 끝까지 해낸 적이 있다.	.50	.56***
b13	나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내가 바라는 만큼 해냈다.	.45	.55***
b14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완수한다.	.53	.58***

*p<.05, **p<.01, ***p<.001

〈표 5〉 자신감 영역의 문항분석 결과

문항	자신감 영역의 문항	요인 부하량	총점과 문항과의 상관
c1	나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37	.54***
c2	나는 친구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	.46	.56***
c3	나는 다른 사람의 느낌을 이해할 수 있다	.64	.61***
c4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64	.59***
c5	나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해 줄 수 있다.	.54	.55***
c6	나는 모르는 길을 설명해주면 찾아갈 수 있다.	.51	.46***
c7	나는 처음 배우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46	.51***
c8	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 쉽게 친해질 수 있다.	.46	.52***
c10	나는 내 생각을 상대방이 이해하도록 전달할 수 있다.	.50	.83***
c13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48	.59***

*p<.05, **p<.01, ***p<.001

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나는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 같다’(b3)문항이 .43로 가장 낮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자신감 영역의 10문항 중 요인부하량을 살펴보면, ‘나는 다른 사람의 느낌을 이해할 수 있다’(c3)문항과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c4)문항이 .64로 가장 높

았으며, ‘나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c1)문항이 .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신감 영역의 10문항 중 총점과 문항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나는 내 생각을 상대방이 이해하도록 전달할 수 있다’(c10)문항이 .83으로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나는 모르는 길을 설명해주면 찾아갈 수 있다.’(c6)문항

〈표 6〉 수용감 영역의 문항 분석 결과

문항	수용감 영역의 문항	요인 부하량	총점과 문항과의 상관
d2	사람들은 내가 슬플 때 나를 즐겁게 해준다.	.71	.71***
d3	사람들은 내가 화나는 일이 있을 때 나를 이해해준다.	.69	.72***
d4	사람들은 내가 걱정이 있을 때 내 문제를 함께 걱정해준다.	.69	.73***
d5	사람들은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	.67	.70***
d6	사람들은 내가 외로울 때 나와 함께 있어준다.	.69	.76***
d7	사람들은 내가 속상할 때 나를 위로해준다.	.71	.77***
d10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준다.	.68	.75***
d12	사람들은 내 편이 되어준다.	.57	.67***
d13	사람들은 내 마음을 잘 알아준다.	.62	.74***
d14	사람들은 내 의견을 잘 받아들여준다.	.60	.70***

*p<.05, **p<.01, ***p<.001

〈표 7〉 친밀감 영역의 문항분석 결과

문 항	친밀감 영역의 문항	요인 부하량	총점과 문항과의 상관
e9	나는 비밀이야기를 할 친구가 있다.	.58	.64***
e10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함께 놀아줄 친구가 있다.	.65	.68***
e11	내가 아플 때 항상 곁에서 돌봐줄 친구가 있다.	.70	.72***
e12	친구들은 나에게 매일 전화를 한다.	.63	.58***
e13	친구들은 우리 집에 매일 놀러온다.	.61	.50***
e14	나는 생일이나 모임에 매주 초대받는다.	.48	.57***
f5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할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	.50	.64***
f8	귀찮은 일도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줄 사람이 있다.	.55	.71***
f9	힘든 일도 조건 없이 도와줄 사람이 있다.	.54	.66***
f12	내가 하고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45	.55***

*p<05, **p<.01, ***p<.001

이 .46으로 가장 낮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수용감 영역의 10문항 중 요인부하량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내가 슬플 때 나를 즐겁게 해준다’(d2)문항과 ‘사람들은 내가 속상할 때 나를 위로해준다’(d7)문항이 .71로 가장 높았고, ‘사람들은 내 편이 되어준다’(d12)문항이 .57로 가장 낮았다.

수용감 영역의 10문항 중 총점과 문항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내가 속상할 때 나

를 위로해준다’(d7)문항이 .77로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람들은 내편이 되어준다’(d12)문항이 .67로 가장 낮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친밀감 영역의 요인부하량을 살펴보면, ‘내가 아플 때 항상 곁에서 돌봐줄 친구가 있다’(e11)문항이 .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내가 하고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f12)문항이 .45로 가장

〈표 8〉 안정감 영역의 문항 분석결과

문 항	안정감 영역의 문항	요인 부하량	총점과 문항과의 상관
g1	나는 대체로 마음이 편안하다.	.63	.70***
g2	나는 안정된 느낌이 든다.	.63	.71***
g3	나는 정신집중이 잘된다.	.48	.55***
g5	나는 쉽게 일상의 복잡한 문제를 잊어버린다.	.47	.33***
g7	내가 바라는 생활과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다.	.48	.57***
g8	하루일과는 대체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53	.62***
g9	나는 지금까지의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	.57	.52***
g11	나는 쉽게 당황하지 않는 편이다.	.44	.46***
g12	나는 매사에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한다.	.59	.67***
g13	나는 다음날도 오늘과 비슷한 하루가 될것이라 생각한다.	.48	.32***

*p<05, **p<.01, ***p<.001

〈표 9〉 의욕감 영역의 문항분석 결과

문 항	의욕감 영역의 문항	요인 부하량	총점과 문항과의 상관
h1	나는 어떤 일이든 잘하고 싶다.	.62	.64***
h2	나는 남들보다 나아지고 싶다.	.62	.66***
h4	나는 내가 바라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	.63	.63***
h7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다.	.64	.61***
h8	나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	.75	.70***
h9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	.75	.69***
h10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싶다.	.77	.72***
h11	나는 어떤 일 이든지 열심히 하고싶다.	.76	.69***
h12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72	.68***
h13	나는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72	.64***

*p<.05, **p<.01, ***p<.001

낮게 나타났다.

친밀감 영역의 총점과 문항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내가 아플 때 항상 곁에서 나를 돌봐줄 친구가 있다’(e11)문항이 .72로 가장 높았고, ‘친구들은 우리집에 매일 놀러온다’(e13)문항이 .50으로 가장 낮았다.

안정감 영역의 10문항 중 요인부하량을 살

펴보면, ‘나는 대체로 마음이 편안하다’(g1)문항과 ‘나는 안정된 느낌이 든다’(g2)문항이 .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는 쉽게 당황하지 않는 편이다’(g11)문항이 .4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안정감 영역의 10문항 중 총점과 문항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나는 안정된 느낌이 든

〈표 10〉 기대감 영역의 문항분석 결과

문 항	기대감 영역의 문항	요인 부하량	총점과 문항과의 상관
i3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50	.57***
i5	나는 남들보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63	.65***
i6	나에게는 슬픈 일보다 즐거운 일이 많을 것이다.	.69	.72***
i8	앞으로 나에게는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70	.73***
i9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되어있을 것이다.	.69	.71***
i10	나에게는 나쁜 일 보다 좋은 일이 더 많을 것이다.	.78	.77***
i11	내가 노력한 것 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될 것이다.	.69	.70***
i12	세상에는 불행한 일보다 행복한 일이 더 많을 것이다.	.72	.69***
i13	나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생활한다.	.60	.61***
i14	나는 앞으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있을 것이다.	.59	.60***

*p<.05, **p<.01, ***p<.001

다'(g2)문항이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는 다음날도 오늘과 비슷한 하루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g13)문항이 .3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욕감 영역의 10문항 중 요인부하량을 살펴보면,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싶다'(h10)문항이 .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는 어떤 일이든 잘하고 싶다'(h1)문항과 '나는 남들보다 나아지고 싶다'(h2)문항이 .6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욕감 영역의 10문항 중 총점과 문항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싶다'(h10)문항이 .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다'(h7)문항이 .6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대감 영역의 10문항 중 요인부하량을 살펴보면, '나에게는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을 것이다'(i10)문항이 .78로 가장 높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i3)문항이 .50으로 가장 낮았다.

기대감 영역의 10문항 중 총점과 문항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나에게는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을 것이다'(i10)문항이 .77로 가장 높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i3)문항이 .57로 가장 낮았다.

2. 신뢰도 검증결과

1) 내적 일관성 신뢰도

3차원 8영역 총 80문항의 아동의 심리적 복지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다음 <표 11>과 같다.

3차원 중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인 차원은 유대감 척도이며, 다음으로 향상감 척도, 유능감 척도 순이었다. 8개 영역 중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인 영역은 통제감 영역이었고,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인 영역은 수용감 영역이었

다. 아동의 심리적 복지척도는 $\alpha = .96$ 로 매우 신뢰로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1> 3차원 8영역의 신뢰도 검증결과

차원	문항 수	신뢰도	영역	문항 수	신뢰도
유능감	30	.89	통제감	10	.72
			성취감	10	.80
			자신감	10	.85
유대감	20	.94	수용감	10	.93
			친밀감	10	.89
			안정감	10	.84
향상감	30	.92	의욕감	10	.90
			기대감	10	.91
			3차원	80문항	$\alpha = .96$
			8영역	80문항	$\alpha = .96$

2) 일반화가능도

(1) G연구결과

오차원과 분산 추정치의 크기 및 각 효과의 영향력을 분석한 $p \times (i : h)$ 설계의 G연구 결과를 나타내면 다음 <표 12>와 같다.

본 설계에서 측정대상은 피험자이므로 전집점수 분산성분은 피험자 분산성분이며 나머지

<표 12> $p \times (i : h)$ 설계의 G연구결과

오차원	df	SS	MS	분산성분추정치 (추정치비율)
p	726	12761.31	17.57	.19(18.80%)
h	7	6201.49	885.92	.11(11.51%)
i : h	72	2032.12	28.22	.03(3.72%)
ph	5082	11157.73	2.19	.16(16.52%)
pi : h	52272	26444.98	.50	.50(49.45%)

p 피험자

h 영역

i : h 영역에 내재된 문항

ph 피험자와 영역간 상호작용

pi : h 영역에 내재된 피험자와 문항간 상호작용

는 오차분산이다. 본 설계는 검사영역에 검사 문항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문항효과는 검사 영역과 문항의 상호작용효과 안에 혼합되어 있다. 또, 문항과 피험자의 상호작용효과는 잔차 분산에 포함된다.

G연구 결과, 피험자분산은 .19(18.80%)으로 개인간 심리적 복지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피험자와 검사영역간의 상호작용 분산은 .16(16.52%)으로 한 영역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 피험자가 다른 영역에서는 낮은 수준을 보일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피험자와 검사영역간의 상호작용 분산은 .16(16.52%)으로 검사영역간 상호작용 분산은 .11(11.51%)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므로 전체 피험자의 심리적 복지점수는 영역별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심리적 복지 점수의 피험자간의 상대적 위치는 영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잔차분산은 .50(49.45%)으로 전체 분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점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오차가 상당부분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체계적으로 오차분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검사영역과 문항이외의 오차원 분석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2) D연구결과

오차를 최소화하고 측정모형을 최적화하고자 $p \times (I : H)$ 설계의 D연구 결과를 나타내면 <표 13>과 같다.

10문항에 대해 검사 영역의 수가 5, 8, 10, 12, 15로 증가함에 따라 일반화가능도 계수는 .81, .87, .89, .91, .93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상대 오차분산은 .04, .02, .02, .01, .01로 감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사영역 8영역에 대해, 검사 문항 수가 1, 3, 5, 8,

<표 13> $p \times (I : H)$ 설계의 D연구결과

표본크기		상대오차	절대오차	일반화가능도계수
검사영역	검사문항	분산	분산	
5	1	.13	.16	.58
	3	.06	.09	.74
	5	.05	.07	.78
	8	.04	.07	.80
	10	.04	.06	.81
	12	.04	.06	.82
8	1	.08	.10	.69
	3	.04	.05	.82
	5	.03	.04	.85
	8	.02	.04	.86
	10	.02	.04	.87
	12	.02	.04	.88
10	1	.06	.08	.74
	3	.03	.04	.85
	5	.02	.04	.87
	8	.02	.03	.89
	10	.02	.03	.89
	12	.02	.03	.90
12	1	.05	.07	.77
	3	.02	.03	.87
	5	.02	.03	.89
	8	.01	.03	.90
	10	.01	.02	.91
	12	.01	.01	.91
15	1	.04	.05	.81
	3	.02	.03	.89
	5	.01	.02	.91
	8	.01	.02	.92
	10	.01	.02	.93
	12	.01	.02	.93

10, 12로 증가함에 따라 일반화가능도 계수는 .69, .82, .85, .86, .87, .88로 증가하며 상대 오차분산은 .08, .04, .03, .02, .02, .02로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면의 차원이 증가함에 따라 오차분산은 감소하고 일반화가능도 계수는 상향조정됨을 볼 수 있다. 다시말해, 검사의 신뢰도

를 높이고자 할 때 문항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 보다 검사영역을 세분화하는 것이 경제적임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와 같이 .87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영역 5문항씩 구성했을 때 .87이고, 12영역 3문항일 때 .87임을 볼 수 있다. 즉, .87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8영역 10문항씩 80문항으로 구성했을 때와 10영역 5문항씩 50문항을 구성했을 때, 12영역 3문항씩 36문항을 구성했을 때 모두 동일한 정도의 신뢰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문항 수의 증가보다는 영역을 증가시켜 10문항이하로 척도를 구성하는 것이 경제적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일반화가능도 계수는 .87로 일반적으로 신뢰도 계수가 .80이 상일 때 양호하다(Shavelson et al, 1993)고 볼 때,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3) 타당도 검증결과

(1) 준거관련 타당도

본 연구의 외적준거로 Diener와 Emmons (1985)의 행복·불행척도와 Campbell, Converse 와 Rodgers(1976)의 일반적 안녕척도와의 상관은 .77($p<.001$)이었으며, 행복척도의 신뢰도는 .84였고, 일반적 안녕척도의 신뢰도는 .65이었다. 본 척도와 외적준거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나타내면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준거관련 타당도 검증결과 ($N=500$)

		행복불행 척도	일반적 안녕척도
본 척도		.54***	.52***
본 척도	유능감 차원	.39***	.35***
	유대감 차원	.43***	.44***
	향상감 차원	.60***	.56***

* $p<.05$, ** $p<.01$, *** $p<.001$

본 척도와 행복·불행척도와의 상관은 .54이며, 본 척도와 일반적 안녕척도와의 상관은 .52이다. 본 연구의 외적 준거로 행복·불행척도와 일반적 안녕척도가 제시된 이유는 심리적 복지에 대한 기존의 측정도구가 수적으로 적으며 아동의 심리적 복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성인생활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의 두가지 척도를 통해 본 연구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공인타당도가 .80 이상이어야 검사의 타당도가 있다(Kubiszyn & Borich, 1993; 299)고 할 때, 만족스러운 수준이라 보기 어려우나 행복·불행척도나 일반적 안녕척도는 단일차원의 척도이지만 본 연구는 차원별 척도이기 때문에 얻게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2) 변별타당도

일반아동과 폭력노출아동간의 심리적 복지를 비교하기 위해 폭력노출아동을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아동과 폭력노출아동을 집단화하는 과정에서 일반아동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므로 동일비율로 폭력아동집단을 제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최하위점수 집단에 근접한 비율로 최상위 집단을 나누어 폭력아동과 일반아동 집단을 구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나타내면 다음 <표 15>, <표 16>, <표 17>과 같다.

일반아동($n=176$, 하위 35.2%)과 폭력목격아동($n=115$, 상위 23.2%)집단의 차이검증 결과, 통제감($t=2.04$, $p<.05$), 성취감($t=2.17$, $p<.01$), 자신감($t=2.11$, $p<.05$), 수용감($t=3.09$, $p<.01$), 안정감($t=2.92$, $p<.01$), 기대감($t=2.73$, $p<.01$)영역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친밀감영역과 의욕감영역은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5〉 폭력목격아동과 일반아동의 차이검증결과

차원	영역	집단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가하는 폭력		
			일반아동(n=176)/ 폭력목격 아동(n=115)		
			평균	표준편차	t
유능감	통제감	일반	33.78	4.78	2.04*
		폭력	32.60	4.89	
	성취감	일반	28.20	5.73	2.71**
		폭력	26.39	5.31	
유대감	자신감	일반	28.25	5.69	2.11*
		폭력	26.80	5.67	
	수용감	일반	27.99	8.08	3.09**
		폭력	25.03	7.80	
향상감	친밀감	일반	26.65	7.45	1.12
		폭력	25.66	7.24	
	안정감	일반	27.51	6.24	2.92**
		폭력	25.38	5.80	
기대감	의욕감	일반	37.21	4.51	-.89
		폭력	37.66	3.48	
	기대감	일반	31.14	7.00	2.73**
		폭력	28.77	7.53	
유능감	일반	90.23	13.37	2.85**	
	폭력	85.80	12.36		
유대감	일반	54.65	14.26	2.33*	
	폭력	50.69	13.91		
향상감	일반	95.86	14.19	2.49*	
	폭력	91.81	12.55		
심리적 복지	일반	237.79	35.86	2.89**	
	폭력	225.67	33.36		

*p<.05, **p<.01

즉, 직접 폭력을 당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가하는 폭력을 목격한 아동집단과 폭력을 목격하지 않은 아동 집단간에 통제감, 성취감, 자신감, 수용감, 안정감, 기대감영역은 차

〈표 16〉 폭력경험아동과 일반아동의 차이 검증결과

차원	영역	집단	어머니가 아동에게 가하는 폭력		
			일반아동(n=100)/ 폭력경험 아동(n=102)		
			평균	표준편차	t
유능감	통제감	일반	33.16	5.60	.92
		폭력	32.51	4.38	
	성취감	일반	28.27	6.03	2.52*
		폭력	26.32	4.84	
유대감	자신감	일반	28.73	5.93	3.29**
		폭력	26.13	5.24	
	수용감	일반	27.68	8.77	3.22**
		폭력	24.05	7.06	
향상감	친밀감	일반	26.49	7.59	2.11*
		폭력	24.35	6.74	
	안정감	일반	27.70	6.68	3.06**
		폭력	25.11	5.18	
기대감	의욕감	일반	36.69	5.37	-.95
		폭력	37.30	3.55	
	일반	30.99	7.70	2.98**	
		폭력	27.82	7.35	
유능감	일반	90.16	15.14	2.76**	
	폭력	84.97	11.23		
유대감	일반	54.17	15.04	2.94**	
	폭력	48.41	12.59		
향상감	일반	95.38	15.98	2.58*	
	폭력	90.24	11.98		
심리적 복지	일반	236.74	41.06	3.09**	
	폭력	221.08	29.93		

*p<.05, **p<.01

이를 나타내었으나, 친밀감과 의욕감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일반아동(n=100, 하위 20.0%)과 폭력경험 아동(n=102, 상위 20.4%)집단의 차이검증 결과,

〈표 17〉 폭력노출아동과 일반아동의 차이 검증결과

차원	영역	집단	폭력노출=폭력목격+폭력경험 일반아동(n=69)/ 폭력노출 아동(n=64)		
			평균	표준편차	t
유능감	통제감	일반	33.55	5.61	1.15
		폭력	32.46	5.18	
	성취감	일반	28.33	6.19	2.35*
		폭력	25.90	5.64	
유대감	자신감	일반	28.78	6.11	2.75**
		폭력	25.98	5.56	
	수용감	일반	27.79	9.16	2.69**
		폭력	23.75	8.10	
향상감	친밀감	일반	26.81	7.71	1.76
		폭력	24.48	7.48	
	안정감	일반	27.63	6.85	3.21**
		폭력	24.23	5.30	
기대감	의욕감	일반	37.14	5.20	-.60
		폭력	37.62	3.81	
	기대감	일반	31.59	7.95	2.77**
		폭력	27.64	8.47	
유능감	일반	90.66	15.66	2.55*	
	폭력	84.35	12.81		
유대감	일반	54.60	15.44	2.45*	
	폭력	48.23	14.42		
향상감	일반	96.37	16.28	2.68**	
	폭력	89.50	12.88		
심리적 복지	일반	238.71	42.12	2.85**	
	폭력	219.56	34.59		

*p<.05, **p<.01

성취감($t=2.52$, $p<.05$), 자신감($t=.329$, $p<.01$), 수용감($t=3.2$, $p<.01$), 친밀감($t=2.11$, $p<.05$), 안정감($t=3.0$, $p<.01$), 기대감($t=2.98$, $p<.01$) 영역에서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통제감 영역과 의욕감 영역에서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아동이 어머니에게 폭력을 경험한 아동 집단과 어머니에게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 집단간에 성취감, 자신감, 수용감, 친밀감, 안정감, 기대감 영역에서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통제감과 의욕감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일반아동(n=69, 하위 13.8%)과 폭력노출아동(n=64, 상위 12.8%) 집단의 차이검증 결과, 성취감($t=2.35$, $p<.05$), 자신감($t=2.75$, $p<.01$), 수용감($t=2.69$, $p<.01$), 안정감($t=3.21$, $p<.01$), 기대감($t=2.77$, $p<.01$) 영역에서는 집단간 차이를 나타냈으나, 통제감, 친밀감, 의욕감 영역에서는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목격한 아동과 어머니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동 모두를 폭력노출아동이라고 했을 때 폭력에 노출된 아동과 폭력에 노출되지 않은 아동집단간에는 성취감, 자신감, 수용감, 안정감, 기대감 영역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였으나, 통제감, 친밀감, 의욕감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V. 논의 및 결론

1. 모형의 구성

본 연구는 심리적복지라는 포괄적이며 모호하게 다루어진 개념에 대한 연구모형을 구성하

고 측정변인의 합리화를 통해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심리적복지는 욕구의 충족, 활동과 정의 몰입, 개인특성, 생활경험이 주관적 준거에 의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개념모형을 설정

하고, 아동의 심리적 복지를 측정하기 위해 개인 차원과 환경차원 그리고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차원으로 3개 차원으로 나누어 유능감, 유대감, 향상감 척도를 구성하였다.

아동의 심리적 복지 측정모형은 아동이 유능하다고 느끼며, 아동을 둘러싼 환경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성장·발달하는 아동은 최적 기능을 위한 방향으로 발달할 때 심리적 복지 상태에 이른다고 보았다. 따라서, 심리적 복지 척도 시안은 유능감(통제감, 성취감, 자신감), 유대감(수용감, 친밀감, 조력감), 향상감(안정감, 의욕감, 기대감)의 3차원 9영역으로 개념모형에 근거해 측정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척도를 개발하여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유능감(통제감, 성취감, 자신감), 유대감(수용감, 친밀감), 향상감(안정감, 의욕감, 기대감)의 3차원 8영역 80문항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8개 영역 중 통제감 영역은 요인 분석 결과 요인부하량 .3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공통성값이 .40이하로 나타났으며, 영역별 상관검증 결과, 유능감 차원의 통제감과 성취감($r = .37$, $p < .001$), 통제감과 자신감($r = .38$, $p < .001$) 영역에서 상관이 낮게 나타났으므로 통제감 영역의 문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볼 수 있었다.

2. 척도 개발

본 연구는 일반화 가능도를 적용해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한번의 검사만으로 측정오차를 나타낼 수 있고, 척도의 최적화 조건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척도개발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나 반분 신뢰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왔다. 이 경

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여러번의 검사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해야 하며, 반분신뢰도를 산출할 경우 척도를 나누어 구성해야했다.

척도개발의 어려움을 고민하던 중 일부 연구(최선미, 1997; 양지은, 1999; 이희자, 1999)에서 척도의 수정을 위한 재분석 과정에 일반화 가능도를 적용함으로써 척도의 최적화를 모색할 수 있고, 여러번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한번에 오차원을 분석 할 수 있었으므로 본 연구는 척도개발과정에 일반화 가능도를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GENOVA 프로그램은 균형모델 설계일때만 분석이 가능하므로 한 문항이라도 결측치가 있거나, 동일한 수의 문항으로 영역을 구성하지 않으면 분석이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일반화 가능도 이론에서는 동일한 수의 문항으로 구성해야한다는 언급이 없으나 (Shavelson & Webb, 1991), 이를 분석하는 통계프로그램의 분석상의 한계로 인해 영역별로 동일한 수의 문항으로 구성해야 했다.

그러므로, 일반화 가능도를 적용해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면, 먼저 요인분석과정에서 동일한 수의 문항을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최소문항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 요인별로 동일한 수의 문항을 선별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문항순서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척도개발과정에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3. 척도의 타당화

먼저, 본 연구는 외적 준거로 두 가지 척도(행복·불행척도와 일반적 안녕척도)를 제시하였다. 심리적 복지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총체적인 생활전반에 대한 평가의 긍정적 측면

이므로, 아동의 심리적복지 척도는 성인생활이 반영되지 않는 내용으로 외적 준거를 제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단계를 수정하고 문항을 보완하여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와 행복·불행척도($r=.543$, $p<.001$), 그리고 본 연구와 일반적 안녕척도($r=.521$, $p<.001$)는 .50정도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 점은 단일차원의 척도를 사용해 차원별 척도와 공인타당도를 검증한 연구에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이지 못하였다(장혜정, 1999)고 함으로써 본 연구는 차원별 척도인데 반해 외적준거로 제시한 척도는 단일척도이므로 이러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폭력노출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간 변별타당도를 제시하였다. 폭력노출 아동을 선별하기 위해 제시된 척도의 점수범위는 최저 12점에서 최고 48점까지이나, 본 연구의 대상은 최저 12점에서 최고 31점까지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폭력노출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 아동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집단간 차이검증 결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한 아동과 어머니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동을 폭력노출집단이라 하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하지 않은 아동과 어머니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없는 아동을 일반아동이라 하여 집단간 비교한 결과, 성취감, 자신감, 수용감, 안정감, 기대감영역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통

제감, 친밀감, 의욕감영역에서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통제감 영역은 폭력목격아동집단과 일반아동 집단간에 차이를 보였으며($t=.204$, $p<.05$), 폭력경험아동집단과 일반아동 집단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92$, $p>.05$). 또한, 친밀감 영역에서는 폭력경험아동집단과 일반아동집단에는 차이를 보였으나($t=2.11$, $p<.05$), 폭력목격아동집단과 일반아동집단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12$, $p>.05$). 그리고, 의욕감 영역에서는 폭력목격아동집단과 일반아동집단 ($t=-.89$, $p>.05$) 및 폭력경험아동집단과 일반아동집단 ($t=-.95$, $p>.05$)이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수준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각 영역별로 폭력노출아동의 유형에 따른 추후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 모호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었던 심리적복지라는 개념을 정의하는데 의미있는 근거를 제시했으며, 척도 개발과정에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간편하게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끝으로, 부정적 정서의 부재를 목표로하는 사후치료적 관점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적인 관점에서 아동의 제 문제를 선별하고 확인하기 위한 실체적이며 활용가능한 도구가 개발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배성애(1998). 청소년의 심리적안녕감과 관련된 인지적요인들에 관한 탐색.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정아(1998). 가족 및 직업특성이 중장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지은(2000).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활용한 종합인지능력검사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주성(1991). 외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의 상호작용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희자(1999). 직업능력검사에 있어서 일반화가능도 이론의 활용.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영은(1998). 방과후 보호형태에 따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심리적 복지감과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재정(1987).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윤선(1993).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행복 불행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선미(1997). 자아개념진단검사의 오차원 분석 및 일반화가능도 계수의 최적화조건.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ndrew,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 American'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ew York : Plenum Press.
- Bra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 Aldine.
- Brennan, R. L., Gao, X., & Colton, D. A. (1995). Generalizability Analyses of Work Keys Listening and Writing Test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5(2), 157-176.
- Brickman, P., Coates, D., & Janoff-Bulman, R. J. (1978). Lottery Winners and Accident Victims : Is Happiness Rela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917-927.
- Bryant, F. & Veroff, J. (1982).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 A Sociohistor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653-673.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 Cowen, E. L., Pederson, A., Babigian, H., Izzo, L. D., & Trost, M. A. (1973). Long-term Follow-up of Early Detected Vulnerable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438-446.
- Csikszentmihalyi, M. (1975). *Beyond Boredom and Anxiety*. San Francisco : Jossey-Bass.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 & Emmons, R. A. (1985).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105-1117.
- Fox, N., & Leavitt, L. (1995). *The violence Exposure Scale for Children- Revised*.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 Heady, B., Holstrom, E., & Wearing, A. (1984). Well-being and Ill-being : Deferent Dimensio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4, 115-139.
- Ipsen, D. (1978). Das Konstrukt Zufriedenheit. *Soziale Welt*, 29(1), 44-53.
- Kazdin, A. E. (1993). Adolescent Mental Health;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 *American Psychologist*, 48, 127-141.
- Kubiszyn, T. & Borich, G. (1993). *Educational testing and measurement*. IL : Scott, Foremen and Company.
- Lane, S., Liu, M., Ankenmann, R. D., & Stone, C. A. (1996). Generalizability and Validity of Mathematics Performance Assessment. *Journal of Educational Measurement*, 33(1), 71-92.
- Lynch, M. D. (1981). Self-Concepts in Childhood. In M. D. Lynch, A. A. Noren-Hebeisen, & K. Gergen (eds.). *Self-Concept :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Cambridge, Mass : Ballinger.
- McDowell, L & Newell, C. (1990). *Measuring Health : A Guide to Rating Scale and Questionnaire*. Oxford.

- McLanahan, S., & Adams, J. (1989). The Effects of Children on Adults' Psychological Well-Being : 1957-1976. *Social Forces. September*, 68(1), 124-146.
- Medley, M. L. (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 Five Years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31, 448-454.
- Ryff, C. & Keyes, C.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 Schuessler, K. F. (1995). Quality of Life Research and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1, 129-149.
- Shavelson, R. J., Baxter, G. P., & Gao, X. (1993). Sampling variability of performance assessments. *Journal of Educational Measurement*, 30(3), 215-235.
- Shavelson, R. J., & Webb, N. M. (1991). *Generalizability Theory : A primer*. Newbury park. CA : Sage.
- Veenhoven, R. (1991). *Subjective Well-being*. Oxford : Pergamon Press.
- Willis, T. A., & Suls, J. (1991). *Social Comparison*. Lawrence Eratum Associates. London Hillsdale.
- Wilson, W. R. (1960). *An Attempt to Determine Some Correlates and Dimensions of Hedonic Tone*. Doctoral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